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 12. 13.(화) 11:00 < 12.14.(수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2. 13(화)
담당 부서	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	책임자	과 장 박재정 (044-203-4030)
		담당자	서기관 이민호 (044-203-4017)

수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결집하다

-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, 「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」 가동, 제13차 간담회 개최 -

- 정보통신기술(ICT),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수출지원 강화 -

□ **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**으로 하는 **「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」**은 12월 13일(화)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㈜아이코닉스 사옥을 방문하여 **수출현장을 점검**하고, **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청취**하였다.

○ 「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」은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(11.23)에서 발표한 **「주요 수출 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」의 후속조치**로

○ **수출현장지원단장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격상**하고, 관계부처 및 유관 수출지원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, 문체부, 복지부, 중기부, 특허청 등 **주요 부처의 참여를 확대**하였다.

□ 안 본부장은 '뽀로로', '꼬마버스 타요'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과 상품화 및 수출을 통해 금년 무역의날 1천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한 아이코닉스의 성과를 축하하고, **콘텐츠 등 서비스 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**하겠다고 밝혔다.

○ ▲ 별도로 수출실적을 발급받아야 정부의 수출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분야 기업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**수출실적 발급을 간소화**하고, ▲ 중국·동남아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비스 분야 수출지원을 다변화하고자 **유럽·일본에 서비스 거점 무역관**(런던, 프랑크푸르트, 오사카 등)을 설치

○ ▲ K-pop 콘서트 연계 전시회(유럽), 범부처 합동 K-박람회 등 정부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하여 **한류를 활용한 해외 전시회 개최를 확대**하고, ▲ 서비스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을 위해 **서비스 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상향**할 예정(5천만원 → 1억원)

□ 현장방문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는 ㈜아이코닉스를 포함한 서울·경기 지역 수출기업 8개사가 참여하여, 각 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 해소와 함께 정부의 수출 지원 확대를 건의하였다.

< 제13차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 개요 >

■ **일시 / 장소** : '22.12.13.(화) 14:20~15:10 / ㈜아이코닉스(경기도 성남시 소재)

■ **참석자**: **(정부)** 통상교섭본부장(주재), 과기정통부, 문체부, 복지부, 중기부, 특허청
(수출지원기관) KOTRA, 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무역협회, 한국콘텐츠진흥원
(기업) 아이코닉스, 이퓨처, 디토닉, 미라셀, 차바이오텍, 케이타운포유, 쓰리뷰, 아이스크림미디어 등 서울・경기 소재 중소기업 8개사

○ **수출기업**들은 ▲ICT·콘텐츠·바이오 등 **분야의 정보제공** 및 **지원 전문성 강화**, ▲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**인력·교육·자금 지원 확대**, ▲**인증 획득 지원** 등을 건의하였으며,

○ **정부 부처 및 수출 유관기관**들은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**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**하고, 기업이 필요로 하는 **마케팅, 금융, 인력, R&D 등 지원을 강화**하기로 하였다.

< 주요 수출애로 해소 지원 사례 >

▸ 해외전시회 참여 시 기관별 한국관 설치로 인한 비효율과 바이어 혼선 발생

→ 수출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통합한국관 설치를 확대('22년 19개 → '23년 30개)하고, "수출지원기관협의회"를 통해 공동 마케팅 협업과제 지속 발굴

▸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필요

→ 무역사절단, 해외 전시회 등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,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한 기업 간 소통 및 정보 취득 지원

▸ 국내외 인증 취득 및 관련 정보 제공 지원 필요

→ 정부 인증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해외 인증획득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"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" 구축

□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“우리 수출이 지난 12.10일 역대 최고액이었던 6,444억불을 넘어섰고, **연말까지 6,800억불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**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,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감소 및 무역적자 확대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”면서

○ “각 부처간 협업을 통해 **기업들의 수출 걸림돌을 제거**하고, 수출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하였다.

□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앞으로 전국 수출현장을 지속 방문하여 기업의 수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,

○ 현장에서 해소하진 못한 애로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**‘원스톱 수출·수주 지원단’**(‘22.11.30일 출범)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·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통상교섭본부장 모두 발언**

【 인사말 】

□ ICT, 바이오, 시스템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**수출 유망 산업의 산실인 판교테크노밸리**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함

□ 어려운 무역 여건속에서도 **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시고 계신 아이코닉스***를 비롯한 **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**

* '뽀로로', '꼬마버스 타요' 등 창작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과 상품 수출

□ 지난 **11월 23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**를 통해 발표한 **「주요 수출 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」의 후속조치**로 기존 「수출현장 지원단」을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**범부처 지원단으로 격상하여 오늘 제13차 간담회를 개최**하게 되었음

○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바로 해소하여 **우리기업들이 수출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** 하기 위한 목적임

【 최근 수출입 동향 】

□ 올해 **우리 수출은 12월 10일 지난해 수출 규모인 6,444억불을 뛰어넘었으며, 연말까지 6,800억불 이상을 달성**하여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
□ 그러나, 3분기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던 수출이 **10월부터 감소**하기 시작했으며 11월에는 작년 대비 14%가 감소하며 **수출 둔화세가 지속**되고 있음

○ 반면, **11월까지 에너지 수입액은 작년에 비해 750억불 이상 증가**하면서 11월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426억불을 기록하였음

□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제로코로나정책이 완화된 점은 우리 수출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, **글로벌 경제성장둔화, 주요국의 금리 인상, 러-우 전쟁 지속 등으로 인해 내년 수출여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**

【 정책지원 방향 】

□ 정부는 **현재 직면한 무역상황을 엄중하게 인식**하고 있으며, **① 우리의 주력시장과 전략시장별 특화전략, ② 산업별 수출경쟁력 강화, ③ 수출지원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**을 추진해 수출활력 제고 및 무역적자 해소를 지원할 계획

❶ **3대 주력시장인 아세안, 미국,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발굴**하고, 오일머니, 친환경 등의 기회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**중동, 중남미, EU 등 3대 전략시장과는 협력을 확대**함으로써 기업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제고하겠음

3대 주력시장	**아세안**	인도네시아, 태국 등 시장 다각화, 소비재·서비스·인프라로 품목 확대
	미국	IRA,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현안 대응, 대규모 프로젝트 참가 지원
	중국	실버·엔젤·싱글 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재 수출 지원 강화
3대 전략시장	**중동**	제2의 중동붐 및 탈석유·제조업 육성정책 적극 대응
	중남미	신시장 확보를 위한 FTA 고도화, 공급망 협력 강화
	EU	폴란드 원전 협력 계기 원전시장 진출 확대, 방산 수출 고도화

❷ 반도체·디스플레이·이차전지와 같은 **우리의 주력·첨단산업은 수출경쟁력을 강화**하고, **ICT, 바이오, 콘텐츠 등 유망산업 분야는 범정부적으로 수출활성화 전략을 마련**해 나갈 계획

- 특히 서비스 분야 수출활성화를 위해 ▲ 서비스 수출실적 발급 절차 간소화, ▲ 서비스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한 서비스 거점 무역관 설치, ▲ 한류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, ▲ 서비스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지원한도 확대(5천만원→1억원)

< '23년 콘텐츠·ICT 서비스 분야 수출활성화 주요 시책 >

- 수출실적 발급이 어려웠던 게임, 음악, 의료서비스와 같은 분야의 수출실적 발급을 간소화 하여 수출실적 기준 수출지원 사업 수혜 가능성 제고
- 중국·동남아 중심으로 지원된 서비스 분야의 수출지원을 유럽·일본 등으로 다변화
  * '23년 서비스 거점 무역관 신설 : 런던, 프랑크푸르트, 오사카, 나고야 등
- K-pop 콘서트 연계 전시회(유럽), 범부처 합동 K-박람회 등 범부처 및 수출지원 기관간 협업 사업으로 한류를 활용한 수출마케팅을 대폭 강화
- 서비스 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지원한도 상향 (5천만원 → 1억원)

❸ 수출기업 애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**무역금융 공급을 확대**하고, **내년 수출 지원 예산은 상반기에 집중 투입***하여 수출 활력을 조기에 회복토록 노력

* 수출지원기관(금융지원기관 제외) '23년 지원 예산(마케팅·인증 등) 60% 이상(약 8,100억원) 집행

- **대통령님께서 "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되어야 한다"고 강조**하셨듯이, 각 **정부 부처의 수출 지원기능을 더욱 확대하고, 부처간 협력도 강화하겠음**

- 특히, 산업부가 12차례 개최해 온 '수출현장지원단'도 오늘 참여한 여러 부처의 협조로 **'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'으로 격상해 새롭게 출범**하였으며, 앞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수출애로 해소와 수출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음

【 마무리 】

□ 오늘 간담회를 통해 수출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하며 우리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계신 대표 여러분의 **의견을 직접 듣고자 함**

○ 수출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비롯해 수출확대를 위한 고견이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**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람**

○ 오늘 기업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애로나 건의사항은 **관계부처나 지원기관에서 최대한 신속히 해결**해 주시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**각 부처에서 적극 검토**해 주시기 바람